

불교대학을 찾아서

9 영남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 관음사 주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고' 내지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는 힘들다.

92년 5월, 3천만 원짜리 전세 건물에서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은 불과 10년만에 7층 건물로 거듭났다. 졸업생만 5만여명이 넘었고, 매학기 3천여명 이상의 신입생이 몰리는 전국 최대규모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신심있는 불자, 지적인 불자, 행동하는 불자, 포교하는 불자'가 되자는 네가지 실행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은 '신, 해, 행, 증(信解行證)'으로 표현되는 부처님 정법을 교육와 실행활동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의 교육은 1년과정의 기초반과 2년, 4년과정의 경전반 외에도 통신과 인터넷 특수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정규과정의 기초반에서는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등의 기본적인 불교교리 및 예법에 대해 가르치며, 경전반에서는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등 불교경전을 교육한다. 특수과정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정규과정과 같은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과정은 네티즌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으며, 가입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영남불교대의 강좌가 이렇게 인기를 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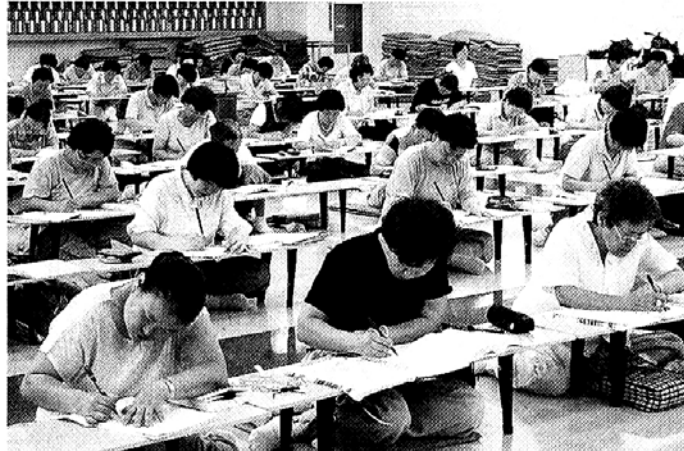
게 된 것은 최근 불교교양대학을 많이 찾고 있는 30~40대 고학력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 우수한 강사진으로 수준높은 교육내용을 제공한 것이 수강생들의 입을 통해 널리 전해지면서부터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은 가능한 학장인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했으며 그의 자랑스님(김통사 주지), 심중스님(부산 지비사 주지) 등 교수급 강사진으로 구성돼 강의를 진행했다.

또 교리공부 뿐만 아니라 무의탁 노인 돕기, 병원봉사단 활동, 상담전화 운영 등

92년 전세로 출발 10년만에 7층 학사 마련 졸업생 5만여명...매학기 신입생 3천명 포교사 합격률 78%선, '종합포교의 장' 서원

10여가지가 넘는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공간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교육과 수행을 병행, 재학생 대부분이 1가지 이상의 봉사모임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2001년 졸업생들의 포교사 고시 합격률이 78%에 육박, 전국 최고를 기록해 교육의 질 또한 최고수준임을 증명하면서 영남불교대학은 명실상부한 지역을 대표하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는 법화경 사경모임. 정진 집중력과 선공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는 불교교양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직접 교재 및 교육과정을 만들며 신도교육의 한길을 걸은 학장 우학스님의 원력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사찰 재정을 신도들에게 공개하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불자들이 마음 놓고 동참할 수 있었던 분위기 제공이 한

상담제일 보살 불기담기 팀장

26기 김자비심 보살



"신행상담을 하면서 열심히 배운 불교교리를 응용하고 있어 기뻐요."

아름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영남불교대학 26기 김자비심(51) 보살은 영남불교대학 부설 상담실에서 매주 목요일 정성껏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일명 '상담 제일 보살'이다. 매주 법화경 사경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 보살은 불기담기 모임의 팀장도 맡아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 있다.

비 그치고 풀벌레 우는 소리 다시 들린다. 흰머리 자라는 곳에 작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흘러내리는 눈물 한줄기... 옛날이 된 어린 시절의 장마는 길었다. 아니 짧았는지도 모른다.

날마다 뒷마루 앞에 떨어지는 낙숫물은 방울방울 모래를 파냈다. 모래를 파내며 하얗게 흘러갔다.

지난 여름 나가르준 삼십리 숲길에서는 푸른 매미들이 숲 그늘을 흔들며 울었다. 매미들은 그렇게 한 세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걸음 앞에 술방울처럼 떨어져 뒹굴었다.

신령스런 호수 코사이론트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었던 지난 가을, 그리고 설산 안 나루두나에서 내려오던 옛그제도 문득 산길에 정이 든 나를 발견했다.

사람에게, 동물에게, 꽃에게, 또는 물건이나 행위에게 정을 주는 일은 때로 실망과 아픔을 주었지만 산길은 언제나 내 발길을 묵묵히 허락해 주었다.

시인 김홍성의 네 딸사는 이야기



<8> 풀잎위 비맞는 달팽이

더덕내음 숲 · 고란초 바윗길 느릿 걸으며
섭한 인연 놓지 못하는 제제한 나를 본다

더덕 냄새는 숲길과 고란초가 자라는 바윗길, 안개가 난향을 머금고 피어나는 능선길, 바람이 설산의 눈 입자를 실어오는 저 높은 고개마루...

그런 길을 걸으면서 쌓인 정이 깊었나 보다. 그 산길을 다시 묵묵히 걸어 보고 싶

다. 오직 숲을 조절하는 데만 몰두해야 하는 설산과 설산 사이의 하늘 고개를 향해 오르는 산길, 그리고 다시 속세를 향해 내려오는 산길에서 나는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를 섬스럽게 했던 모든 인연들에 대해

서, 그리고 그런 섬섬함을 하나도 안 놓고 사는 아주 제제한 인간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직도 쥐고 사냐'라는 어느 스님 말씀이 저 산길 위의 깊고 푸른 가을 하늘에서 뇌성처럼 울려퍼진 것도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산길을 걸어 오르고 걸어 내려온 까닭 일 것이다.

혹 나에게 섬섬함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나를 용서해 달라. 나는 많이 울었다. 나는 매미보다 더 많이 울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비참해진 인간도 한 때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누구나 그 때를 그리워한다. 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산길을 걸어야 한다. 풀잎에 불어 비 맞는 달팽이처럼 저 눈보라 치는 고개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월 화 수 목), 필수 : 5과목, 선택 :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강휘욱(동국대), 허경우(동국대), 김사영(동국대), 김중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법배전승사)
- 교육과목 (※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하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연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선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간독 · 불교의 철학
	2학기(14주)	· 법학사상 · 외암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진행 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교과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8월 23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개강일시 2002년 8월 26일 오후 6시 30분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명자 범죄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헤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 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

이 향비를 신김(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김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항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마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김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무월경,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향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통증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김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 해 있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아쉬움까지 남기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매달되는 증상에 () 기입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장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위력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2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온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땀이나 감성선으로 고생을 당한다